
2019年12月18日 (水)

かながわ探検隊

～オギノパン工場・宮ヶ瀬ダム見学よくぼりツアー～

神奈川県かながわけんの観光地かんこうちや施設等しせつ などを見学けんがくし、ファンクラブの会員かいいんの皆さんみなに、神奈川かながわの魅力みりょくに
直接ちよくせつ触れていただく「かながわ探検隊たんけんたい」。今回の探検隊たんけんたいは、オギノパン工場見学こんかい、宮ヶ瀬ダム見学たの、県立あいかわ公園で紙漉き体験たのをして楽しみました！

まずはバスに乗って早速さっそく、オギノパン 本社工場へ！



オギノパン工場見学



到着してすぐにはながわグルメグランプリで金賞を受賞した、「あげパン」がなんとあげたてでお出迎えしてくれました！！

おいしいあげぱんを食べながら、オギノパン工場のおぎのさんから説明を受け、パンの製造ラインを見学！



大きな釜や、ベルトコンベヤーでたくさんのパンが流れていきます。

併設されているベーカリーコーナーからはとてもいいにおいが！！魅力的なパンがたくさんあり、迷ってしまいますね。みなさま、たくさんのパンをお買い上げでした！！



【宮ヶ瀬ダム～水とエネルギー館内 Lake side caféとダムレクチャー】

宮ヶ瀬ダムカレーは、ご飯に埋まっているソーセージを抜くと、反対側にカレーが流れ出す仕組みになっています。

それぞれカレーを放流して、いただきます！



甘めのカレーですが、後からスパイスの味がどんどんしてきます。

添えてある、温野菜たちは発電所や森林をイメージしているようです。

昼食後は、水とエネルギー館内レクチャールームにて、宮ヶ瀬ダムに関するお勉強。



衛生中継からの風景
宮ヶ瀬ダムの場所を探します。



つづいて、体験型展示では、ダムの仕組みや、利用について体験型アトラクションで楽しく学びます。

ダムの中をエレベーターでおります。ダムの下まで行き、見上げると予想以上の大きなダム！！

ほんのり寒いダムの中では、地元活性のための、日本酒を貯蔵しているプロジェクトもあるようです。

県立あいかわ公園～工芸工房村での紙漉き体験～



①ミツマタの木の繊維を水に溶かします。
 (ハガキ5枚分で約80～100グラム)
 木枠に原料をすくい入れ、平になるように、
 左右前後に揺らしながら、水を落とします。

②乾燥した紅葉をハガキの上に置き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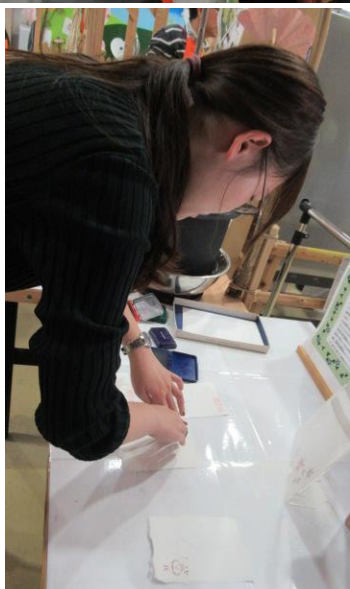
③もう一度、薄いハガキを作り、紅葉をおいたハガキの上に重ねて、紅葉を固定します。
 職人の人と息を合わせて、はい、ここです！

④掃除機で水分を吸い取ります。 ⇒

⑤約90度の鉄板に貼り付け、さらに乾燥



⑥乾燥が終わり、木の板でハガキを平にしたあとは、準備してあった、スタンプで飾り付け。クリスマスカードや年賀状にぴったりのスタンプがたくさんあり、テンション上がります！！



無形文化遺産 紙漉き体験
 オリジナルハガキの完成～！！



こんかい たんけんさき
今回の探検先

○オギノパン本社工場 (<https://ogino-pan.com/>)

○宮ヶ瀬ダム内 水とエネルギー館 (<http://www.ktr.mlit.go.jp/sagami/>)

○LAKE SIDE CAFÉ (昼食) (<http://lakesidecafe.co.jp/>)

○県立あいかわ公園内工芸工房村 (<http://www.aikawa-park.jp/publics/index/21/>)

こんかい たび
今回の旅はいかがだったでしょうか。かながわ探検隊に興味を持った皆様、ぜひ参加して
ください！皆さんを楽しませる企画を用意してお待ちしております！

さんかしの みなさんの こえ にほん
参加者の皆さんの声 (日本語及韓国語)

韓国出身の方①

外国人だが、神奈川の住民になってからもう 5 ヶ月の時間が過ぎました。その間に有名な観光地であるみなとみらい、箱根、鎌倉への訪問も楽しかったのですが、神奈探検隊ツアーはさらに特別な旅になりました。

今回の探検旅行が特別だった理由は、1 番目は現地人でないと分からない魅力的なところを訪問した事、2 番目はお互いに違う国で生活した人々が出会い、お互いの文化を理解し、交流できた事でした。それでは、神奈川の魅力を確認できた今回の探検について話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12月18日、探検隊10人は神奈川本庁舎前で県庁バスを乗って出発しました。当然、新しく出会う人には自己紹介が必要。はじめから開かれた心で知り合った方々でしたが、自己紹介が終わると、もっと近くなったという感じを受け、続いて開催されたクイズゲームをしながら"どうすれば韓国を紹介することができるか、そして"他の国にはこういう文化があるんだな"と交流しながら、今日はとても楽しい旅行になるような気がしました。

バスの中で雰囲気盛り上がった頃、探検隊のバスはおぎのパン工場に到着しました。バスを降りる前から私たちを待っていた社長は工場で作ったばかりのあげパンをくださったし社長の心がこもったその温かいパンはとてもおいしかったです。社長は工場を案内してくれながら、工場の歴史やパンの製造工程について詳しく説明してくれました。ここに来て説明を聞きながら作る過程を目で見て、そのパンを食べてみたら信頼感が増す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結局、バスに乗るときには、私の財布の中にあった紙幣は左手に持っていたパンに変わっていました。そして寮に着いて友達とおいしく食べました。

次に訪れたのは国が管理している宮ヶ瀬ダムでした。 県央地域の豊かな自然が楽しめる場

所ですが、なかなか行けない地域に位置しているので外国人には知られていない地域です。

しかし、4年前から宮ヶ瀬ダムツアーを作っていていつでも行けるようになりました。写真からも分かるように、余裕のある気分を味わえる場所です。KANAFANの皆さんもぜひ行ってみてください。

私は以前水道と湖の水質に関する仕事をしたことがあるので、今回の旅行で関心が高かった場所でした。台風19号と暖かい気温の影響で湖は緑色をしていたが、そのような水を安心して飲むことができるよう、きれいな水を作ってくれる神奈川の職員にありがたみを感じました。そして、全然知らなかった面白いことも学びました。日本には約2,800余か所のダムがあり、訪問する旅行客たちにダムカードを提供していてカードを収集するために、全国のダムを訪れる旅行客たちもいるそうです。

また、ダムでカレーが食べられることに驚きました。ダムに行くと、絶対カレーを食べないと！という気がするほど、ダムをモデルにした料理のアイデア(写真参照)が興味深かったです。ご飯の中にあるソーセージを抜いた時、ダムから水を放流するようにカレーが穴から出てきて、食べる楽しみも見るとも楽しみもありました。昼食の時間では大きなテーブルに5人ずつ座って多くの対話をしました。一緒に座れる広い空間と余裕のある時間が相手をもっと分かるようになったきっかけになりました。移動しながら話すには限界がありますが、ゆったりと話をしていたら、もっと深い会話ができました。

参加者Aさんは、中国に3カ月間留学に行きました。そこで出会った中国人大学生1年生であったBさんとの出会いがあって、今でもやりとりしあうグローバル友達となり、言語、文化の先生になって良い関係を続けていました。

最後に私たちが訪れたのは県立あいかわ公園工芸工房村でした。世界文化遺産に登録されている和紙づくり体験ができる場所でした。職人の手を借りて年賀状に使える自分だけのはがきを作りましたが、完成したはがきは今、私の机の中に大切に保管しています。年が明けたら、ぜひこの紙を使って好きな人に年賀状を送ることを考えたら、紙を見るたびに胸がドキドキします。とても楽しかったので神奈川に住んでいるみなさんも、もし機会があればぜひ参加してみてくださいと言いた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外国人이지만 카나가와의 주민이 된지 벌써 5개월 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틈틈이 유명한 관광지인 미나토미라이, 하코네, 가마쿠라 방문도 즐거웠지만 카나가나 탐험대 투어는 좀 더 특별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탐험 여행이 특별했던 이유는 첫 번째, 현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매력적인 곳을 방문 했던 것,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카나가와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모험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12월 18일 탐험대 10명은 카나가와 본청사 앞에서 현청버스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당연히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소개가 필요한 법. 처음부터 열린 마음으로

만남 분들이었지만, 자기소개가 끝나자 좀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어서 개최된 퀴즈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을 소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나라는 이런 문화가 있구나” 라고 소통하면서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여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분위기가 불타올랐을 무렵, 탐험대 버스는 오기노 빵 공장에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기 전부터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장님은 공장에서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빵을 주셨고 사장님의 마음이 담긴 그 따듯했던 빵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공장을 직접 안내해 주면서 공장의 역사와 빵 제조 공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설명을 들으며 만드는 과정을 눈으로 보고 그 빵을 먹어보니 신뢰감이 올라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버스를 탈 때쯤에는 제 지갑 속에 있었던지폐는 왼손에 들고 있던 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도착해서 친구들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에 방문 한 곳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야가세 댐이었습니다. 현 중앙지역의 풍부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지만, 좀처럼 갈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4년 전부터 미야가세 댐 투어를 만들어 언제라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 듯이 정말 여유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KANA FAN 여러분도 꼭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수도와 호수의 수질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었기에 이번 여행에서 관심도가 높았던 곳이었습니다. 19호 태풍과 따뜻한 기온의 영향으로 호수는 녹색을 띄고 있었지만, 그런 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만들어 주는 카나가와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혀 몰랐던 재미있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약 2,800여 개의 댐이 있고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댐 카드를 제공하고 있어서 카드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의 댐을 찾아 다니는 여행객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댐에서 카레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댐에 가면 무조건 카레를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댐을 모델로 한 요리의 아이디어(사진참조)가 흥미로웠습니다.. 밥 속에 있는 당근을 뺏을 때 댐에서 물을 방류하는 것처럼 카레가 구멍으로 나왔는데 먹는 즐거움도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큰 테이블에 5명씩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같이 앉을 수 있는 넓은 공간과 여유로운 시간이 상대방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동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느긋하게 이야기를 나누니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란 분은 중국에 3개월 간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만난 중국인 대학생 1학년 상하고 인연이 되어 글로벌 친구이자 언어, 문화 선생님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문한 곳은 현립 아기가와 공예공방촌이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종이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이었습니다. 장인의 도움을 받아 연하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만의 종이를 만들었는데 완성된

종이는 지금 제 책상 속에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된다면 꼭 이 종이를 사용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연하장을 보낼 생각을 하니 종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끝으로, 담당자인 카노씨는 잠시 사무실을 떠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만도 했지만, KANA FAN 분들의 즐거운 여행과 다음 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바쁘게 뛰어다녔던 뒷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즐거웠기에 카나가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만약 기회가 된다면 꼭 참가 해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韓国出身の方②

今回のかながわ探検隊は、私にとって神奈川県のある有名観光地や各種施設の見学を通じて神奈川県の魅力を実感し、同時に世界各国の人々と交流することができた、楽しく意味深い時間であった。

見学地向かうバスの中でも自分の国のクイズを当てていく過程で参加者たちの国の新しい点を知り、初めて出会った方々と親しくなれた。施設見学の際にもいろいろな国から来られた方々と一緒だったので、国際的な視点で見学できた。特に、おぎのパン工場でのおいしいあげパンの温かくて甘い味が忘れられそうにない。また、社長の暖かい歓迎と親切な説明がとても印象深かった。

ダム施設を見学する時は美しい自然と調和した雄大で素晴らしい姿と素晴らしい施設に感嘆が湧き、ダムカレーを食べるときは参加者と国、文化、人、経験など様々な話を交わしながらもっと親しくなれてよかった。最後に訪れた県立あいかわ公園の工房村！紙の製作過程が世界文化遺産に登録されたという点からその優秀性にとっても関心が出たが、何よりも直接葉書を作って日本の伝統文化を体験できてとても興味深かった。

本探検を準備していただき、当日参加者たちを率いてくださった関係者の方々の労力と努力に深く感謝したい。

이번 가나가와 탐험은 나에게 있어 가나가와현의 유명 관광지 및 각종 시설 견학을 통해 가나가와현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동시에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견학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자신의 나라에 대한 퀴즈를 내고 맞추는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점들을 알게 되면서 처음 만난 분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시설견학을 할 때도 여러나라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하니 국제적인 시각으로 견학할 수 있었다.

특히, 오기노 빵공장에서 맛있는 아게빵의 따뜻하고 달콤한 맛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또 사장님의 따뜻한 환영과 친절 한 설명이 매우 인상 깊었다. 댐 시설을 견학 할 때는 아름다운 자연과 잘 어우러진 웅장하고 멋진 모습과

훌륭한 시설에 감탄이 절로 나왔고, 댐 카레를 먹을 때는 참가자들과 나라, 문화, 사람, 경험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현립아이카와공원의 공방촌! 종이를 만드는 과정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는 점에서 그 우수성에 매우 관심이 생겼는데 무엇보다 직접 엽서를 만들며 일본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다.

본 탐험을 준비해주시고 당일에 참가자들을 인솔해주신 관계자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さいご 最後に

さいご　こんかい　　たんけんたい　　きょうりょく　　みなさま　　あらた　　かんしゃもう
最後に、今回の「かながわ探検隊」にご協力いただいた皆様に改めて感謝申
あ
し上げます。

　　こくさい　　こんご　　かながわ　　みりょく　　さぐ　　たんけんたい　　かいさい
　　かながわ国際ファンクラブでは、今後も、神奈川の魅力を探る「かながわ探検隊」を開催
　　しますので、みなさんのご参加をお待ちしております！